

안전협회, 교육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 2006. 8. 17 ~ 19일, 안전협회는 교육담당자에게 필요한 제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외부고객의 만족을 통해 협회 교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담당자직무교육을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실시하였다.

Safety Pictures

안전협회, (주)대우건설 2006년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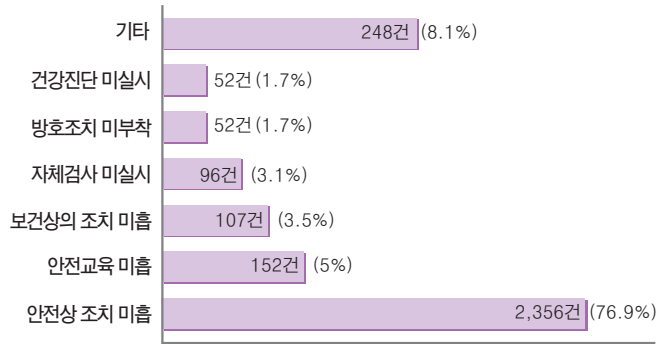
- ▲ 2006. 8. 28 ~ 30일 안전협회는 (주)대우건설 관리감독자 140명을 대상으로 통합과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관리감독자로서의 안전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을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 검찰과 합동점검으로 231개소 사법조치, 400개소 과태료 부과 처분

노동부는 지난 6. 1 ~ 30일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010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231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 대하여 4억 2천 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산재예방 안전조치 미흡이 7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교육 미실시가 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흡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법 조치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 위반건수 1,156건 중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990건(85.6%)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이 72건(6.2%), 보건상의 조치 위반이 43건(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총 부과금액 4억 2,444만원 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작성이 1억 7백만원(2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이 8,360만원(19.7%), 건강진단 미실시가 6,759만원(15.9%) 등으로 약 60%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하여는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 위반 사항 >

한국산업안전공단,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포스터 현상공모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2008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동 대회 홍보에 활용할 포스터를 현상 공모한다.

지난 6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공식인터넷 홈페이지(www.safey2008korea.org) 개설에 이어 동 대회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국제적으로 공모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간이며 우수한 작품 선정과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내외국인 등 참가자의 제한이 없다. 공모 안내는 노동부(www.molab.go.kr)와 한국산업안전공단(www.kosha.or.kr) 및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www.safey2008korea.org)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접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제협력팀에서 한다.

동 대회 국제조직위원회(IOC) 및 국내조직위원회(NOC)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년 11월14일경 대상 1점(상금 3백만원) 및 우수상 2점(상금 각 1백만원)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는 노동부 후원 아래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유치하는 대회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SSA), 한국산업안전공단(KOSHA)이 공동으로 2008년 6월 29일 ~ 7월 2일간 서울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전보건 국제행사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점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관내(영등포구, 강서 및 양천구)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분업화, 전문화에 따라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함으로써 발병할 수 있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2년간 작업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사업장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06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 140개소를 대상으로 발병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중량물 취급이나 인체 부담작업,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에 대하여 작업공정, 작업시간 및 휴식, 작업환경 등을 지도 점검하며, 발견되는 위해위험요인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또 서울남부지청은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팜플릿을 제작하여 관내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배포하는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Safety Pictures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 용어를 쉽게 쓴 사전 나왔다.

이번에 발간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은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안전공학, 기계, 건설, 건강, 산업의학 등 8개 분야별 용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폭넓게 담고 있는 이 용어사전은 총 920페이지 분량에 3,600개의 용어를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여 초보자도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용어사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물질의 유해성을 밝혀낸 '2-Bromoprophan(브로프로펜)' 등 새롭게 밝혀진 직업성 질환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의 제작에는 전문분야별 학계 교수,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용어사전은 과거 사전적 의미로만 존재하던 용어와 새로운 물질, 질병 등의 용어들을 현장의 실정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리 하였다"면서 "이번 용어사전의 발간을 통해 국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적·학술적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